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2년 8월 뉴스레터 vol. 56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24%의 기적 이런 장례가 장래의 미래
- 공간채비 이야기 생기 가득한 채비 공간
- 숫자로 보는 채비 성별로 역할을 차별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98.8%
- 메멘토모리 언젠가 죽는다
- 조합소식 한여름밤의 영화상영회 '할머니의 먼 집'
- 긴급공지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유사상호 주의보

조합원에게 알립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유사상호 주의보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한겨레상조'로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상조'는 후불제업체로 우리 조합의 명칭과 앞의 세 글자 '한겨레'만 같습니다.

우리 조합의 명칭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 브랜드는 '채비'입니다. 또한 우리 조합은 '상조'라는 단어 대신 '상포계' 혹은 '장례'라 표기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상담: 1800- 9517 / 장례접수: 1588-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이런 장례가 장래의 미래



얼마 전 우리 조합이 운영하는 공간 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2층)에서 열한 번째 채비 추모장례가 열렸다. 채비 추모장례는 병원 장례식장 아닌 소박한 공간에서 하루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접객 위주가 아닌 가족과 고인을 애도하는 지인 중심의 소규모 장례이다.

가파른 인구 감소에 1인 가구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조직 노동에서 프리랜서 노동으로 노동구조가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고비용 3일장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조합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병원장례식장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 언제부터냐 조합원들의 문의가 많아졌고 이런 요청에 답하기 위해 채비 추모장례가 탄생했다. 2020년 7월 새로운 대안 장례, 채비 추모장례를 실행하기 위한 공간 채비가 문을 열었다..

다시 열한 번째 채비 추모장례로 돌아가면, 91세로 돌아가신 고인은 딸만 일곱을 두었다. 전남에서 태어난 어머니는 어린 시절 계모 밑에서 자랐고 결혼 후에는 어려운 살림에도 농사를 지으며 살뜰하게 딸들을 길렀다. 시절이 시절인지라 아버지와 시댁의 구박이 심했다. 줄줄이 딸만 낳았다고 평생을 타박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봉건 유습과 고난의 시대를 견디며 곳곳하게 어머니로서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토록 사랑하던 고인이 명을 다하자 일곱 따님 중 한 분이 상주를 맡았다. 상주는 가족들끼리 오롯이 고인만을 추모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싶었다. 접객도 하지 않고 화환도 받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를 생각이었다. 공간 채비만큼 좋은 장소가 없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상주는 우리 조합의 채비 플래너 전승욱 부장과 고인의 일생을 담은 조문보를 만들고 사진을 모아 영상을 제작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장례일정과 추모식 순서를 조율했다. 다음 날 공간 채비에 빈소를 차리기로 했다.

이른 아침, 빈소를 막 차리고 있는데 연세 지긋한 사위 한 분이 도착했다. 그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례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라며 우리에게 항의했다. 그는 아마도 장례는 으레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것이고, 상주는 딸들 대신 사위가 해야 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남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유족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딸, 사위, 손녀, 손자까지 30여 명에 이르는 대가족이었다. 상주를 비롯한 유족들은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꽃으로 장식한 제단 위에 영정사진이 놓였고, 촛불을 밝혔다. 탁자 위에 유품을 전시했고, 메모리얼 트리가 세워졌다. 접수대 옆에는 다과를 진열했고 경건한 피아노 선율이 실내를 감돌았다.

여성이 상주를 맡고 술과 음식이 없는 장례, 조화도 대규모 조문객도 받지 않고 3일장도 아닌 하루장으로 치르는 장례. 남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추모식 내내 그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처럼 겹돌았다. 장례식만큼 성 불평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도 없다. 유교 전통의 우리 사회에서 장례식은 오랫동안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시대가 바뀌고 의식이 변해도 실제 장례 현장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5년간(2-14년~2019년)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는 20~50대 1천300명을 대상으로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인 가구, 비혼 증가 등 최근 가족 변화와 기존 장례방식이 맞지 않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85.8%로 나타났다. 장례문화가 사회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장례를 치를 때 응답자의 95%가 남성이 상주 역할, 영정사진과 위패를 드는 역할을 하고, 76-6%는 남성이 장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60.6%가 장례에서 남성이 상주를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장례식에서 여성이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접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3%였지만 69.6%는 이 같은 여성의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비해 성평등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장례문화는 변한 게 거의 없다.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정착지원법’ 제4장 제15조(상제) ②항에 따르면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만 될 수 있다’고, 5장 제례 제21조(차례) ②항은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채비 추모장례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처음부터 여성들이 주도해 기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했다. 어머니를 잃은 딸들은 마음껏 슬퍼했고, 서로 부둥켜안고 위로했다. 둥글게 원을 만들어 머리를 맞대고 서럽게 울면서 “엄마 말씀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자”고 다짐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녀손자들은 친지와 조문객을 맞이하고 정성껏 다과를 차려냈다. 미리 손발을 맞춘 듯 각자의 몫을 다했다.

12시간에 걸친 장례를 끝내고 그들은 말했다.

“이런 장례가 장례의 미래예요.”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생기 가득 채비 공간



1. 뜻깊은 회의와 세미나와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점점 더 공간 사용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합에서 진행한 죽음과 장례관련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6월 23일과 30일 저녁 7시에 진행한 ‘채비 플랜 교육’에는 1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반반 정도였습니다. 첫날 진행한 채비 장례 개요는 추모식의 필요와 개념에 대해서, 고인 사진 영상 만들기에서는 부모님의 삶을 사진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조합이 진행했던 채비 장례의 실제 사례와 추모식 준비에 관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7월 7일과 14일에 ‘이틀안에 만드는 나의 장례식영상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현주, 권혁구 다큐멘터리 감독을 초빙해서 좋은 장례식 영상에 관한 사례를 보고, 내가 찍은 사진과 영상으로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나온 삶의 장면을 정리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7월 23일에 ‘청소년,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 일반과정’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창업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경제가 청년 청소년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2022년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협동의료인 교육’이 있었습니다. 의료사협 대표자와 보험공단 관계자가 모여 변화하는 시대속에서 의료사협이 나아갈 길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아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역 공동체의 의료 돌봄을 시도하는 하는 분들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2. 초록으로 물들다

최근 몇 달 사이 사무국은 집념을 갖고 공간채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조합 운영과 공간 활성화 등으로 바쁜 중에도 테라스 잔디밭에 꽃을 심었습니다. 올해 참 덥고 습한 날이 많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크고 작은 화분에 새 흙을 넣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요즘 공간채비는 꽃과 식물이 주는 생기로 가득합니다. 이곳에 들러 커피(차) 한 잔 하며 초록으로 변한 공간에서 여유와 평온을 만끽하길 권합니다.

3. 시설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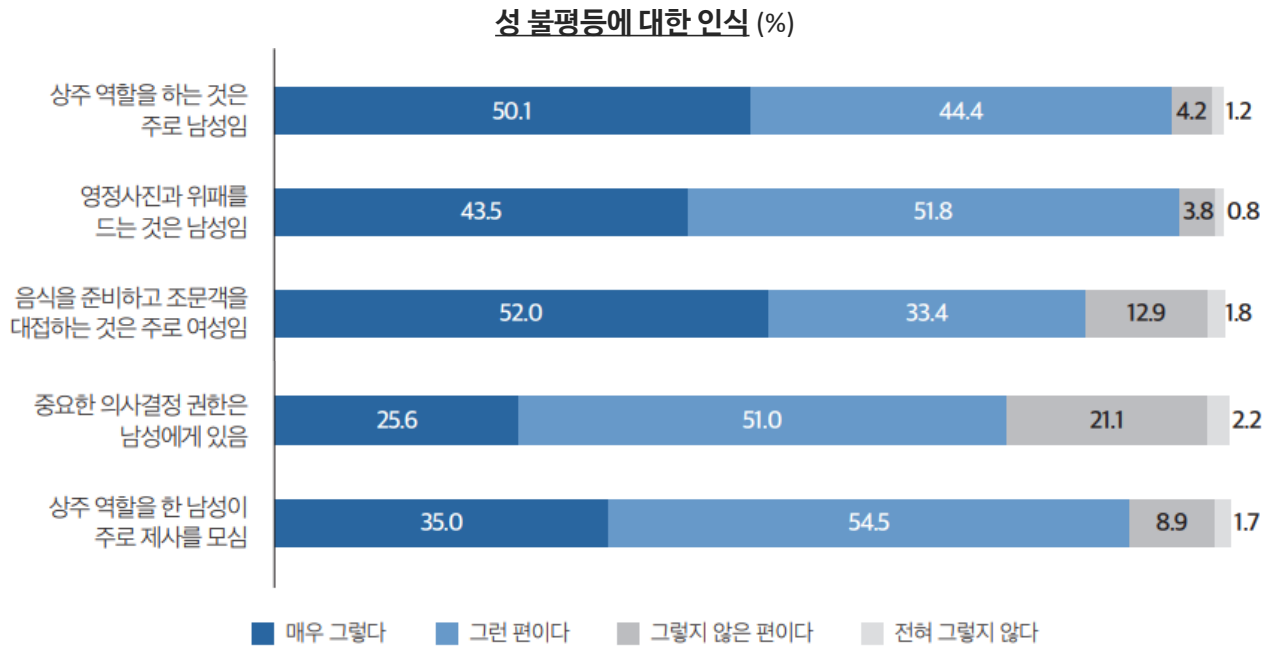
많은 분들이 공간채비의 행사환경에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간혹 생각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해서 모임을 하는 분께 송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조합과 공간채비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책상과 의자를 보충하였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음향 시설을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온-오프라인 회의는 충분하지만 아직 높은 품질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실 수 있는 조합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분기에도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공간채비를 잘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공간채비는 임대 빈도가 더 많아질 뿐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될 것입니다. 특히 추모식과 사전장례식(생전장례식)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의 멋진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3분기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승욱 | 공간채비 매니저,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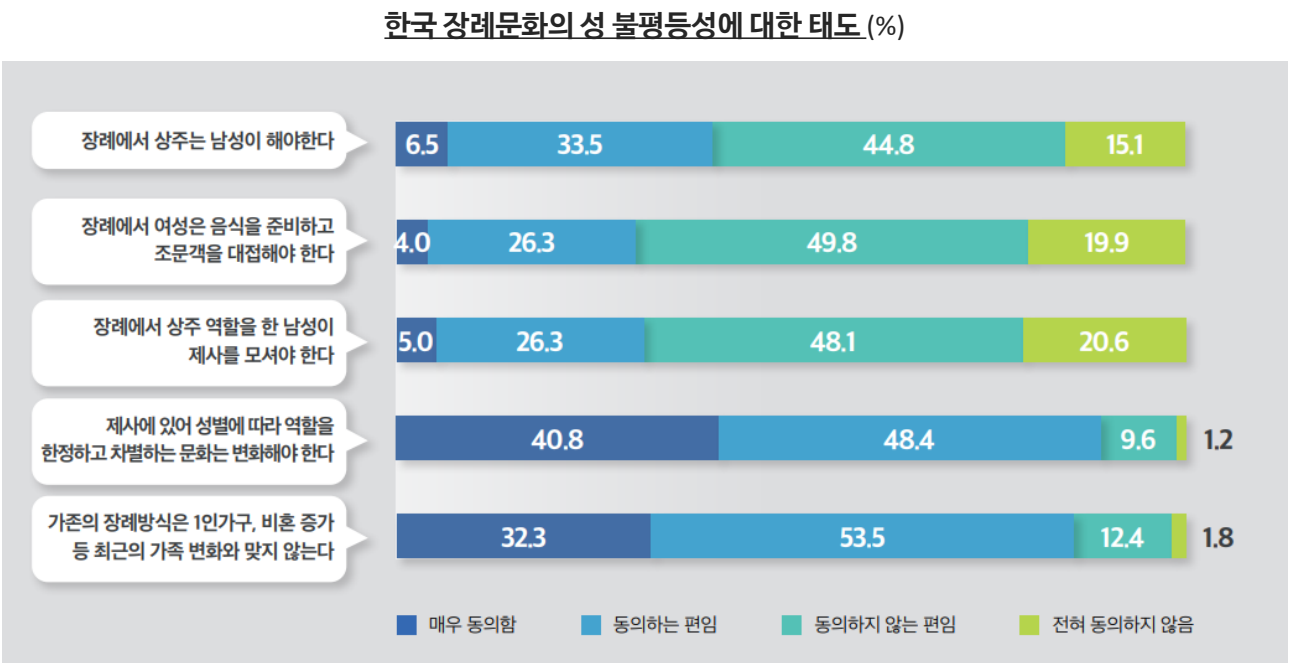
1 장례문화,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장례의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은 남성에게 있다 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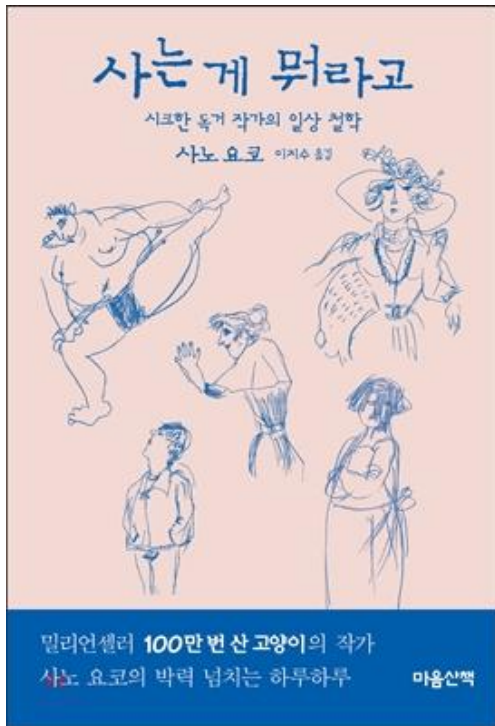
2 장례문화, 성 불평등에 대한 태도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 98.8%



*자료출처: 한국 장례 국민 인식 조사, 2019. 전국20~50대 장례경험자 1312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젠가 죽는다



사는 게 뭐라고

사노 요코 저 | 마음산책

『사는 게 뭐라고』는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살아가야 한다는 등 아름답게 꾸민 단어로 사람을 초조하게 만드는 책이 아닌, ‘밥이나 지어 먹자’는 생각이 드는 책이다. 그리고 살아 있으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책이기도 하다. 질긴 개개의 삶, 찬란과 황홀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 그녀의 거침없는 문장을 떠올리면 소소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상쾌하게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의 기분을 도대체 모르겠다. (27쪽)/ 늙은이는 공격적이고 언제나 저기압이다. (81쪽)/ 성격은 병이다. (88쪽) /아, 지구는 망해가고 있다. (196쪽)/ 늙으면 다들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110쪽) /좁은 집구석에서 남자한테 훌쩍 반하기도 하고 미친 듯이 화를

내기도 하며 행복하다. (196쪽)/ 사람은 무력하다. 그리고 모두들 자신이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다. (212쪽)/ 전철을 타고 둘러보면 젊고 예쁜 여자 앞에는 반드시 할아버지가 서 있다. (230쪽)

『사는 게 뭐라고』에는 화장실에 붙여놓고 싶은 인생의 한 줄 명언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불쾌하면서 유쾌하고, 음울하면서 통쾌한 다층적인 매력을 뽐내는 사노 요코. 그녀는 좁게는 인간이라는 종에 대해, 넓게는 천하를 논하며 속 시원하게 독설을 퍼붓는다. 작가가 역설하는 ‘삶이란 생각처럼 멀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과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어서 읽는 이에게 쾌감을 선사한다.

부끄러운 과거, 자기 성격의 어둡고 나쁜 부분을 보기 싫어서 앞만 바라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달리 사노 요코에게는 뒤쪽을 직시하는 강인함이 있다. 자신의 바닥까지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확실하게’ 추궁하다 벌떡 화를 낸다. 그러고는 밥을 지어 먹고,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들고 다시 벌떡 일어난다.

사노 요코는 건망증이 심해지고 자기혐오에 빠지며 암에 걸리는 등 책 전편에 걸쳐 심신의 상태가 나쁘다고 호소한다. 말하자면 몹시도 부정적인 일기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덮은 독자가 우울해지는가 하면, 아니다. (사자마자 까마귀 똥으로 뒤덮인) “너덜너덜해진 재규어를 타고 힘차게 후진해 나가는 듯한” 두근거림이 남을 것이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서울조합] 한여름밤의 영화상영회 '할머니의 먼 집'

SUMMER NIGHT

공간채비 한 여름밤의 영화상영회

건물을 돌면 다시 건물을 만나는 서울 도심 한복판,
각박한 일상을 살다보면 휴식이 필요하지만 쉽게 생활을 떠나가는 어렵습니다.
공간채비에서 함께 영화도 보고 맥주도 마시며 잠시 멈춤의 시간 어떨까요?



한국사회복지법인전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할머니의 먼 집

(DEAR GRANDMA, 2015)
다큐멘터리 | 이소현감독

아흔 세살의 할머니는
왜 자살을 택했을까?
할머니 손에서 자란 소녀의 눈으로
바라본 할머니의 일상!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포착한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제41회 서울독립영화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 제8회프로젝트 마켓 관객상 수상'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16회 인디다큐페스티발' 초청 상영
'2016년 천안여성영화제'개막작, '제17회 제주여성영화제'의 폐막작

신청방법

일시	2022년 8월 25일 (목) 오후 7시~9시 (영화 상영 90분, 감독과의 대화 30분)
장소	충무로 공간채비
정원	선착순 30명
참가비	10,000원(맥주, 음료수, 안주, 다과 제공)
주최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다다무협동조합

★ 신청은 하단링크에서 제출 ▼▼▼

공간채비 오시는 길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 2층
(충무로역 1번 출구 도보 5분)



주차장 정보

- 헤센스마트 주차장 3,000원/30분
- 장충공영주차장 900원/30분(500m)
- 필동공영주차장 900원/30분(600m)

- 신청: <https://forms.gle/eWCQVTKWEVT28JQFA>

- 영화 소개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aver?code=144584#>

2022. 7월

박선아 조합원 배우자상
장성오 조합원 사돈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문치성 조합원 모친상
허주영 조합원 부친상

권혁술 조합원 모친상
이보은 조합원 시모상
이복희 조합원 모친상
이종대 조합원 부친상

최혜연 조합원 시부상
김상현 조합원 지인상
남영우 조합원 모친상
신성호 조합원 모친상

2022. 6월

임승필 조합원 부친상
이계령 조합원 시모상
문성환 조합원 부친상

이병훈 조합원 가족장
심은선 조합원 모친상
박정미 조합원 모친상

방승범 조합원 모친상
김홍범 조합원 부친상
허남혁 조합원 조모상

2022. 5월

정재권 조합원 모친상
이흥구 조합원 모친상
조미진 조합원 부친상
전채호 조합원 부친상
김의겸 조합원 모친상

김양주 할머니 시민사회장
조옥엽 조합원 시모상
박영록 조합원 모친상
윤상흠 조합원 모친상
김재정 조합원 부친상

허경원 조합원 배우자상
진용하 조합원 빙부상
이영옥 조합원 모친상
선창규 조합원 자녀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사전 장례식’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홍민정 작가의 장편 동화 ‘모두 웃는 장례식’에서는 주인공 윤서네 가족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인 ‘사전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사전 장례식’은 죽기 전에 친척, 지인 등을 초대해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기 암환자 김병국씨는 "죽고나서 장례 지내면 뭐하나, 살아있을 때 작별인사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지인들에게 "죽은 다음 장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임종 전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을 입고 함께 춤추고 노래 부릅시다."라는 부고를 보내 살아 생전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눴습니다.

망자에게 인사하는 장례식은 더 이상 서로 ‘인사’할 수 없기 때문에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스스로 하는 헤어짐을 ‘작별’이라 하고,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을 ‘이별’이라고 합니다.

채비장례는 존엄한 이별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사전 장례식’을 신청 받아 1팀을 선정,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전 장례식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 및 생애영상 함께 보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이별 인사 하기, 음식과 다과 나눔. 위로와 축복의 마지막 이별 인사

*프로그램은 장례식 주인공/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요지원사항

- 행사 기획 및 진행, (공간채비) 대관비, 생애 영상 제작, 행사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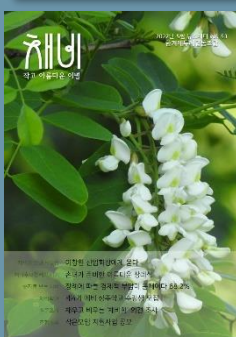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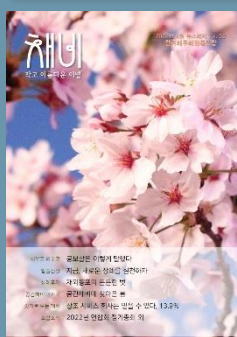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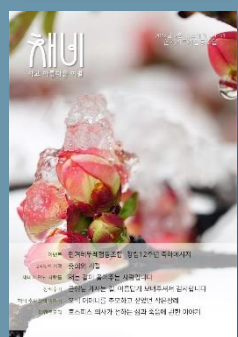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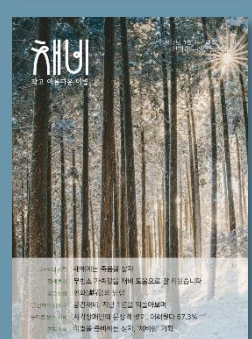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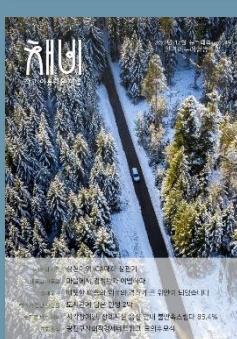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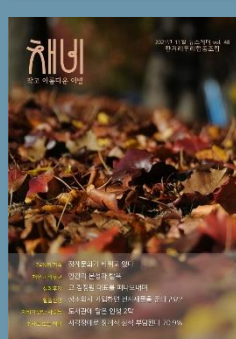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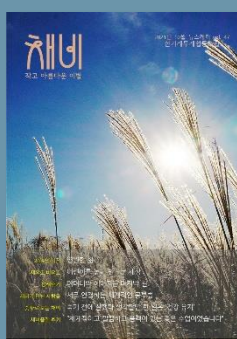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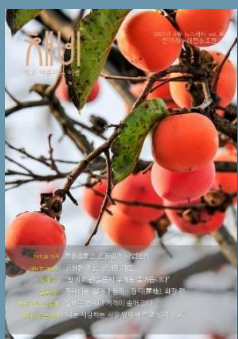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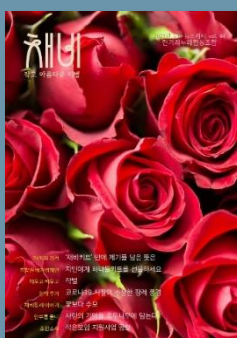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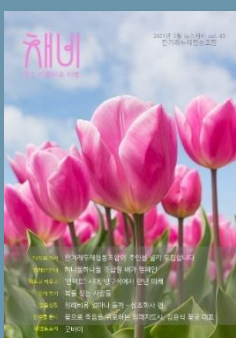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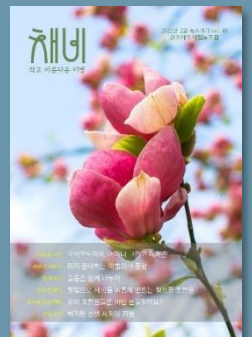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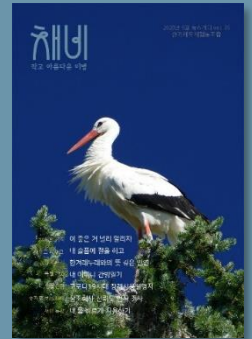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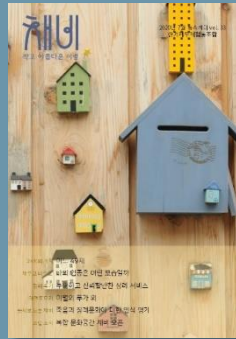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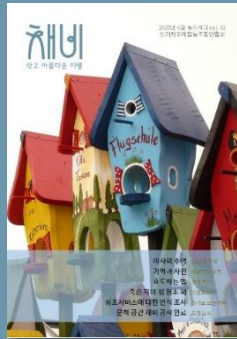
■ 협조사항

- 사전장례식 다큐 촬영 동의 및 언론 홍보 초상권 허용

■ 신청 (링크 클릭) <https://forms.gle/rCyHZcvE8em26Xo2A>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